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막

‘회합과 희망의 축제 한마당’ 제2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21일 여수 전남경기장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갖고 5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이번 체전은 16개 시·도에서 6천350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개막행사에서 ‘녹색미소’ 주제의 군무가 펼쳐지고 있다. /여수=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기발하다, 신선하다, 깜짝 놀랐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발상의 전환’ 관람객 탄성



광주시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장에 때아닌 ‘6070 풍물시장’이 문을 열었다. 제3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주전시 가운데 하나인 ‘살림전’이다.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60~70년대,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던 숟가락, 밥그릇, 파리채, 성냥, 화로, 탈살 등 2만여점의 세간이 전시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디자인그룹 ‘가슴 연구소’의 출품작인 ‘살림, 살자’는 이러한 향수를 불러 일으키며 디지털 세대의 관람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낡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던 잡동사니 속에 숨어 있는 디자인 요소들을 끄집어낸 기발한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낸다. 지난 18일 개막한 제3회광주디자인

비엔날레(18일~11월4일)에 국내와 전문가와 일반 관람객들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나열하는 여타의 백화점식 디자인 행사와는 달리, 예술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시도와 파격적인 작품으로 ‘명품 전시’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소쇄원 등 남도의 한옥에서부터 한글, 심지어 김치와 오징어 등 음식을 소재로 한 작품들은 디자인의 고정관념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국내의 디자인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일분인 요리전문가 스스무 요나구니의 ‘송례문광장’은 관람객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작품이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 작품을 기대하며 비엔날레관 4전시실을 찾은 관람객들은 매운 고추 냄새 때문에 코를 먼저 막는다. 나주에서 공수해온 고추 20kg를 8개의 대형 한지조병 위에 올려 거대한 탑을 형성한 작품이다. 붉고 매

운 고추를 소재로 한국의 전통적인 문양을 관람객들이 시각과 후각으로 직접 느끼게 했다는 점에서 개막과 동시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17일 프레오콘에 참가한 이탈리아 출신의 디자인 거장 알레산드로 멘디니는 이 작품을 본 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발상을 ‘광주’가 실천했다”며 “이처럼 ‘비디자인적’인 소재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작품은 극히 드물다”며 박수를 쳤다. 또 국내의 유명 건축가와 연극인 등 예술가들이 소쇄원을 재해석 작품을 선보이는 2전시실의 ‘집’섹션도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드는 전시다. 세계 3대 자동차 디자이너인 피터 슈라이어, 하버드대 토머스 슈로퍼 건축학과 교수, 황지우 시인 등 국내외 유명인사들이 장르를 넘어 설계한 다양한 건축디자인이 신선함을 주고 있다. 소쇄원을 모티브로 각자의 상상력을 접목시킨 휴식 공간은 관람객들을 사로잡았다. 은병수 예술 총감독은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는 낡고 오래된 것들에 생명을 불어넣음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에 목말라 있는 국내의 디자인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면서 “기존의 디자인 전시가 세계의 눈을 통해 한국의 디자인을 추구했다면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한국의 ‘뿌리’를 통해 세계 디자인의 미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재해석
정국경 / 단정 / 조신경 / 정국경
가정용 / 업소용 판매
11월 18일 / 2011.11.18. / 11월 18일
100% 한국산
산수土風
은정작합니다.
소재: 산방천동 / 불기계기재
소비자 (061)381-9893
상당실 010-6586-0001
토종건강음식점 운영분장 성업중
대규모 토산 상품 진열

영산강 턴키공사 설계 심의위원 전격 공개 로비전 판칠까... 투명성 커질까

정부가 영산강 살리기 턴키(설계·시공 일괄 발주) 공사 설계 평가위원 12명 등 4대강 살리기 설계 심의위원을 21일 참여업체들에게 전격 공개했다. 심의위원이 공개되면 로비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그동안 심의 당일 새벽에 당사자에게만 통보하던 관행을 깬 것이다. 심의 1주일 전 평가위원 공개로 참여업체들의 총력 로비전을 촉발할 것인지, 보다 수준 높은 시공사 선정의 시금석이 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리’ 해왔다. 이 과정에서 뇌물공여나 향응 제공 의혹 등이 수시로 터져나왔다. 일부 교수에게는 미리 연구용역을 주는 방법을 쓰기도 했다. 새벽부터 평가위원을 모셔가기 위해 집 앞에 차를 대기시키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원벽시공 시금석 될까= 국토해양부는 21일 영산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의 15개 턴키 공사 평가위원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소집, 참여 건설사의 설계안에 대한 공동설명회를 가졌다. 건설사들에 평가위원의 면면을 공개한 것이다. 턴키 구간인 영산강 2공구와 6공구의 심의를 진행할 평가위원 12명도 이날 선정됐다. 이들은 이날 업체별 설계도면을 받았다. 이들은 오는 27~28일 대전의 한 호텔에서 합숙하며 설계평가를 마무리한다. 정부는 평가위원을 공개한 것은 턴키공사 발주의 투명성을 높여 수준 높은 시공을 확보하는 한편, 불법 로비를 막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익산청 관계자는 “전문성과 청렴성을 가진 전문가들을 위주로 선정했다”며 “나중에 평가 결과도 공개하기 때문에 양심을 걸고 잘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일부에서는 정부가 건설사들의 사전 로비에도 흔들리지 않는 특별 대책을 마련한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1주일 동안 총력 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그동안의 로비에 노출돼 왔기 때문에 쉽게 유혹을 물리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평가위원들로부터 청렴 서약서를 받는 등 모종의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력 로비 희생양 될까= 그동안 턴키 공사의 설계심의회는 전국 3천여명의 전문가 풀(교수·연구원·공무원)에서 뽑힌 10~15명이 맡는 것이 관례였다. 발주처가 심의 당일 새벽에 통보했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이들 전문가들을 평소

이번에도 명단이 공개된 21일부터 최종 설계심의 당일인 27일 오전까지 건설사들의 ‘은밀한 접촉’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로비 대상이 명확한데다, 심의위원들의 주관적 설계 평가에 따라 낙찰이 좌우되는 탓에 치열한 로비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른 시각도 있다. 국토부와 사정당국이 지켜보고 있는데 내놓고 로비할 수 있겠느냐는 견해다. 영산강 수주전에 참여한 한 건설사측은 “정부와 검찰이 ‘한번 해 바라’, ‘가만두지 않겠다’며 칼을 갈고 있는데 로비할 건설사가 있겠나”고 말했다. 한편, 영산강의 경우 사업비가 6공구 3천362억원, 2공구 1천487억원으로 수주 여하에 따라 건설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초대형 공사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정운찬 “Y사 회장에 1천만원 받았다”

인사청문회 위장전입·병역기피 의혹 등 추궁

국회는 21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총리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했다. <관련기사 4면>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세종시 건설 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를 묻고 위장전입·병역기피·세금탈루·논론 중박계제 등 의혹에 대해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정 후보자가 세종시의 행정 비효율을 들이 사업

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모회사인 Y회사 회장으로부터 용돈을 받았다는 민주당 강문태 의원(광주 남)의 주장에 대해 “해의에 나갈 때 ‘너무 궁핍하게 살지 말라’며 2번에 걸쳐 1천만원 정도 받은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또 “지출이 수입보다 많다”는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지난 3년간 지출총액 등 필요경비로 계산된 금액 중 상당부분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중박계산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박지을기자 jpkp@kwangju.co.kr